

# 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

##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(4월 1~2주)

### 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#### ① 베트남 4월 경제 동향

- 베트남 '26년 1분기 경제성장률 7.83% 기록
  - 베트남 재무부 통계국(NSO)에 따르면, 1분기 경제성장률은 7.83%로, 2010년 이후 1분기 최고치를 기록
  - 전체 경제 구조는 서비스업 43.45%, 공업·건설업 37.15%, 농림수산업 10.89%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동기와 유사한 구조
- '26년 1분기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치액 USD 152억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.9% 증가
  - 신규 프로젝트 규모는 USD 102.3억(904건, +6.4%)으로 2.4배 증가했으며, 기존 프로젝트의 증자 규모는 USD 23억(251건)으로 55.1% 감소
  - 국가별 투자 규모는 싱가포르 52%, 한국 35.9%, 중국 4.1%, 홍콩 2.5% 순
- '26년 1분기 베트남 교역액 USD 2,49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% 증가
  - 수출이 19.1% 증가하며 선전했지만, 원자재 및 부품 수입이 27% 급증하며 무역수지 적자는 USD 36.4억 기록
- '26년 1분기 베트남 산업생산지수(IIP) 전년 동기 대비 9% 증가
  - '26년 3월 IIP는 전월 대비 18.8%, 전년 동기 대비 6.9% 증가하였으며, 1분기 IIP는 전년 동기 대비 9% 증가해 2020년 이후 1분기 최고치 기록
- '26년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(CPI) 전년 동기 대비 3.51% 상승
  - '26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전월 대비 4%대 상승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 기록

## ②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

- 제16대 국회, 베트남 4대 지도부 확정
  - '26년 1월 당대회에서 당서기장 재임이 확정된 또 럽 서기장은 제16대 국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국가주석으로 공식 선출되며, 당과 국가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1인 체제 확정
  - 차기 총리에는 최연소 중앙은행 총재 및 공산당 중앙조직위원장 출신의 레 민 흥 선출
  - 제16대 국회의장에는 쩌 탄 먼 현직 의장 재선출
- 베트남 동나이성, 7번째 중앙직할시 승격 추진
  - 베트남 동남부 산업 중심지인 동나이성은 수도 하노이와 호치민, 하이퐁, 다낭, 껀터, 후에에 이어 7번째 중앙직할시로 승격될 예정
  - 베트남 국회는 12일 열린 1차 회기 본회의에서 동나이지 직할시 설립 결의안(초안)을 이번 회기 안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며,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오는 20일부터 23일 열릴 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될 것으로 예상
  - 동나이성은 지난해 7월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해 면적 1만2,000km<sup>2</sup>, 인구 45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로 거듭난 바 있어 중앙직할시로 승격되면, 호치민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에 더해 중부 고원지대와 남중부 해안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
- 하노이시 100년 비전 수도 종합 기본계획 승인
  - 하노이시 인민의회는 21세기 하노이의 장기적 공간 개발과 인프라 청사진을 담은 수도 종합 기본계획(100년 비전)을 만장일치로 승인
  - 홍강을 생태·문화 경관의 핵심 축으로 삼고 개방형 도시 모델을 구축하며, 특히 14개 노선의 메트로 중심 대중교통망 확충과 남부(푸쑤옌·응화 지역) 제2국제공항 및 배후 공항도시 건설 추진
  - 해당 기본계획 확정으로 하노이 외곽 신도시 개발, 제2공항 직결 노선(메트로 9호선 등) 신설, 홍강 양안 통합 개발 및 역세권 고밀도 복합 개발(TOD) 프로젝트에 대한 막대한 공공·민간 자본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

### 3 베트남 기타 동향

- 하노이-꽝닌 고속철도 착공
  - 하노이-꽝닌 고속철도는 수도 하노이부터 동북부 최대 관광·산업 중심지인 꽝닌성을 30분 생활권으로 묶는 사업으로 베트남 최초의 시속 350km급 고속철도
  - 본 노선은 하노이부터 박닌성, 하이퐁을 차례로 거쳐 꽝닌성까지 120km 연장이며, 투자자인 빈스피드는 사업비 VND 147.4조(USD 56억) 중 VND 22조 직접 투자 및 VND 125조 외부 조달 예정
  - 하노이-꽝닌 고속철도는 2028년 중 완공 예정이며, 개통 시 현재 2~2.5시간 안팎인 하노이와 꽝닌성 간 육로 이동 시간이 25~30분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
- 냐짱-달랏 고속도로 5월 착공 예정
  - 베트남 중부 해안 관광지인 냐짱과 중부 고원 휴양도시 달랏을 연결하는 냐짱-달랏 고속도로는 총 연장 80.8km, 총 사업비 VND 25조(USD 9.5억)으로 민관협력사업(PPP)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며, 5월 19일 정식 착공 목표
  - 냐짱-달랏 고속도로 완공 시 현재 4시간 상당인 육로 이동 시간이 2시간 안팎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
- 호치민시, 주요 인프라사업 4월 말 대대적 착공 예정
  - 호치민시는 통일절을 기념해 주요 인프라 사업 착공 예정이며, 주요 프로젝트는 메트로 2호선 벤탄-투티엠 구간, 호짬-롱탄 고속도로, 견저 국제환적항, 까이멩하 종합컨테이너항 등
- 안장성, 남서부 해안 일대 대규모 인공섬 조성사업 추진
  - 베트남 메콩 삼각주 안장성은 베트남 대표 휴양지인 푸꾸옥부터 태국만 연안 도시인 하띠엔과 락자까지 남서부 해안에 걸쳐 대규모 인공섬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
  - 예상 해안 매립 면적은 약 4,500ha 규모로, 베트남 역사상 최대 규모로 매립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
  - 안장성은 '27년 착공을 목표로 4대 해상 매립 클러스터 조성안을 확정

## □ 일반 프로젝트 동향

### ① (베트남) 다낭 바나 지역 대규모 신도시 프로젝트

#### 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다낭시 인민위원회
- (사 업 비) 약 VND 13.0조 (USD 5.2억)
- (사업내용) 총 면적 260ha 규모의 복합 신도시 및 생태 거주 단지 개발
- (추진계획) 개발 계획 확정, 향후 세부 설계 및 민간 투자자 모집 입찰 예정

- (주요사항) 다낭시 서부 핵심 관광지인 바나힐 인근의 체류형 인프라 및 거주 환경을 확충하기 위한 매머드급 신도시 사업
  - 다낭시가 추진하는 공간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, 국내외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의 자본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설계 및 민간 투자자 모집 입찰 진행 예정

### ② (베트남) 흥옌 노스 스타(North Star) 주거단지 개발 사업

#### 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흥옌성 건설국
- (사 업 비) 약 VND 2.1조 (USD 8,400만)
- (사업내용) 총 면적 14.9 ha의 대규모 신규 주거단지 조성
- (추진계획) 프로젝트 투자 목록 공식 발표, 향후 민간 투자자 선정 절차 돌입

- (주요사항) 흥옌성 건설국이 새롭게 승인 및 발표한 대규모 주택·신도시 개발 사업
  - 수도 하노이와 인접하여 급성장 중인 흥옌성의 인구 유입을 수용하기 위한 핵심 주거 인프라 프로젝트로, 민간 투자자 선정 절차 진행 예정